

# 경제주평

- 경기 회복 강화 속 소프트패치 가능성 우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1년 2분기)

# 목 차

---

## ■ 경기 회복 강화 속 소프트패치 가능성 우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1년 2분기)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2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2
4. 시사점 .....	1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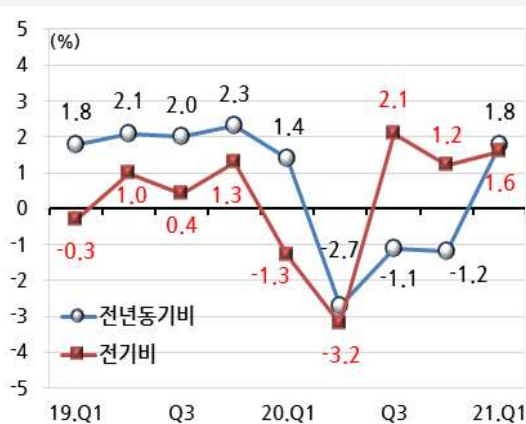
### □ 경기 회복 강화 속 소프트웨어 가능성 우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1년 2분기)

####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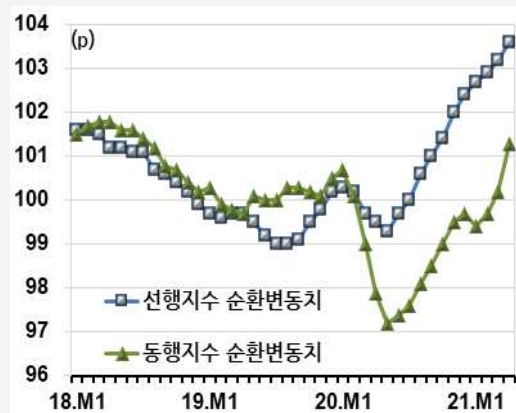
**(경기 회복세의 강화)** 수출 호황과 내수 부문의 기저 효과적 반등으로 경제성장률과 경기지수의 개선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2021년 1분기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202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1.8%의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전기대비 경제성장률도 2020년 3분기 2.1%, 4분기 1.2%에 이어 2021년 1분기에도 1.6%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4월에 들어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101.3p로 3월 100.2p보다 상승하였다. 또한,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3월 103.2p에서 4월 103.6p로 높아졌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회복)** 최근 소비는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4월에 들어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는 올해 1~2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3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상에는 있으나 4월에 개선세가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3월 전월대비 2.3%에서 4월에도 동일한 2.3%를 기록하였다. 한편,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3월 10.9%에서 4월 8.6%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비

내구재와 준내구재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구재가 4월에 들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설비투자 확대)** ICT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ICT 부문 투자가 확대되면서 강하지는 않지만, 투자 회복세가 지속 중이다. 4월에 들어 ICT 산업보다는 비ICT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ICT 투자지수 증가율은 3월 전월대비 6.1%에서 4월에 0.5%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전체 설비투자지수는 비ICT 투자가 확대되면서 3월 전월대비 0.0%에서 4월에 3.5%로 높아졌다.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에서는 자본재수입액과 국내기계수주액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중인 것으로 볼 때,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경기 상승)** 건설수주가 호조를 지속 중인 가운데, 건설기성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4월 중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3월 전년동월대비  $\Delta 1.0\%$ 의 감소세에서 4월에 4.5%의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향후 건설 경기 수준을 예고해 주는 4월 건설수주액(선행지표) 증가율은 민간 수주(전년동월대비 79.6%)와 공공 수주(151.5%)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3월 35.8%에서 4월 84.2%로 크게 높아졌다.

**(수출 호황)** 수출 경기는 단가와 물량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5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5.6%로 '20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수출 단가와 수출 물량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수출 경기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별로는 對중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對미국(62.8%), 對EU(62.8%)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도 ICT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기초 중간재인 유화와 철강 제품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저효과에 의한 고용 개선)** 고용시장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4월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2020년 4월의 4.2%)보다 하락하였으며, 4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13.8%로 전년동월의 14.9%보다 개선되었다. 단,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0%로 전년동월(9.3%)보다 상승하였으며, 청년 확장실업률은 25.1%로 전년동월(26.6%)보다 하락하였다. 한편, 전년도 고용 충격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4월 대부분 업종의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 전체 신규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5만 2,000명 증가하였다.

**(인플레이션 압력 집중)**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도 집중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입물가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3월과 4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3월 전년동월대비 4.1%에서 4월에 5.6%로 크게 높아졌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전기·수도·가스는 하락

하였으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2년 3월(2.7%) 이후 최고치이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7년 8월(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전년동월대비 3.3%로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 경제 심리 확산)** 최근에 들어 가계소비 심리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5.2p를 기록하며 지난 3월(100.5p) 이후 기준치 100p를 3개월 연속 상회 중이다. 반면, 그동안 빠르게 개선되었던 기업 부문의 경제 심리가 2분기에 들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다. 전경련 BSI(전망)는 3월(109.2p)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은 BSI(업황전망)도 개선되는 추세는 유지 중이나 6월에 들어서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4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3월 5.7%에서 4월에 8.8% 크게 높아졌으나,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3월 0.9%에서 4월에  $\Delta 1.1\%$ 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제조업)** 2분기에도 생산 증가세가 확대 중인 가운데, 출하가 크게 늘고 재고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4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13.0%에 이르고 있으나,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생산이 침체(전월대비  $\Delta 10.9\%$ )하면서 제조업 전체 생산은  $\Delta 1.7\%$ 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서비스업)** 4월 서비스업은 전월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2월 이후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건설업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확대되면서 완전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 경기 방향성 결정 핵심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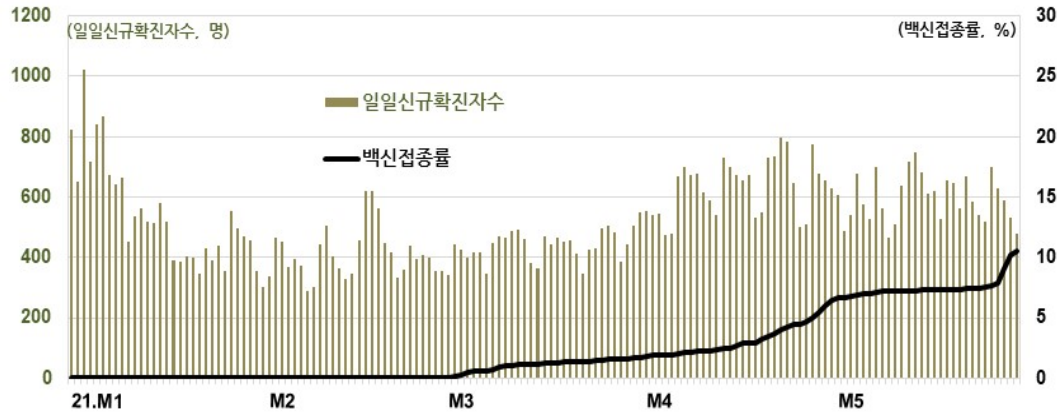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속도, ② 국내외 금융시장의 긴축발작(Taper Tantrum),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현실화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 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속도

2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여전히 국내 방역 상황은 크게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신규확진자수 추이를 보면, 지난 3월 일평균 438명에서 4월 633명으로 높아졌다가 5월에는 590명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대면 업종 등의 경기 불황 탈출이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완전한 경제 회복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집단면역의 달성이 필수적이며, 이에 향후 백신 접종률의

추이가 2021년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신규확진자수 및 백신접종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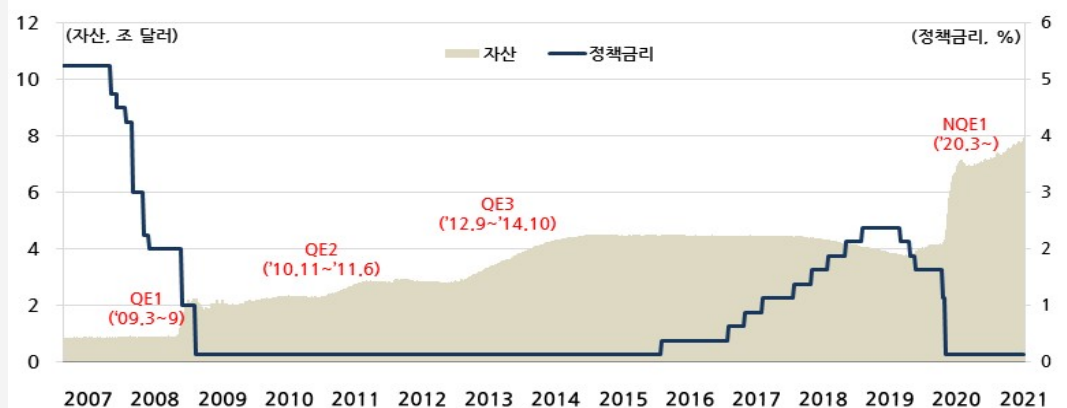


자료: 질병관리청, Our World in Data.

② 국내외 금융시장의 긴축발작(Taper Tantrum, 緊縮發作)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극단적인 팽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중이다. 특히, 미 연준(FED)은 2020년 3월 제로 금리 단계 진입 이후 양적완화(QE) 정책을 지속 중인데, 그 결과 미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0년 초 4.3조 달러에서 2021년 5월 말 현재 7.9조 달러로 3.6조 달러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실물 경제 지표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통화정책 정상화(출구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테이퍼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5월 벤 버냉키 前 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외환 시장과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 연준의 테이퍼링 국면 진입 시 국제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미 FED의 정책금리 및 자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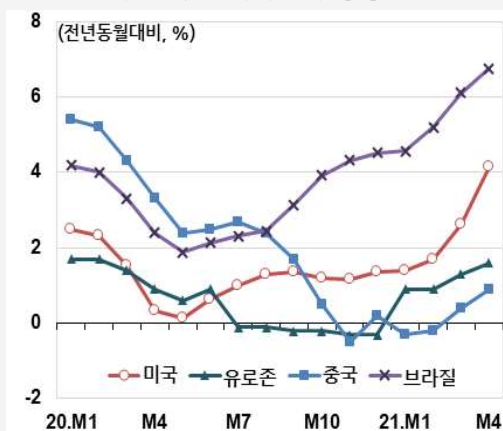


자료: FED. 주: QE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의미.

###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2021년에 들어 대부분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전개 중이다. 2021년에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전년동월대비 1.4%에서 4월에 4.2%로 급등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9%에서 1.6%, 중국은  $\Delta$ 0.3%에서 0.9%, 브라질은 4.6%에서 6.8%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주된 원인이나, 최근 실물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가 빠르게 가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물가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가 불안(inflation)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0.6%에서 5월 2.6%로 급등하였다. 특히, 실제 시장 수요 측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의미하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도 같은 기간 전년동월대비 0.9%에서 1.5%로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 중이다.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 국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1년 2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및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내수 부문도 빠르지는 않지만,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1분기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 진입한 이후, 2분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국면으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기 전망)** 하반기 경기 흐름은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빠르지는 않지만, 시간

이 갈수록 개선되는 '경기 추세의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내수 부문도 방역 상황의 개선(백신접종 확대에 의한 확진자수 감소)으로 회복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소프트웨어 패치 가능성)** 하반기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될 경우 경기 회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 집단면역이 달성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직전 분기인 3분기부터 경제 내 대부분 섹터들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보건학적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 경기 재침체(더블딥) 국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경(양적 완화 축소)으로 인한 신흥시장의 긴축발작과 국내외 인플레이션의 과속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기가 회복되다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소프트웨어 패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 ■ 시사점

한국 경제가 하방 리스크 요인들을 극복하고 코로나발 경제위기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코로나19발 불황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응하여 수출 경기 확장을 위한 차별적인 시장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신흥시장 긴축발작에 대비하여 후행 글로벌 경제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 차단을 위한 대응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민체감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수요 복원에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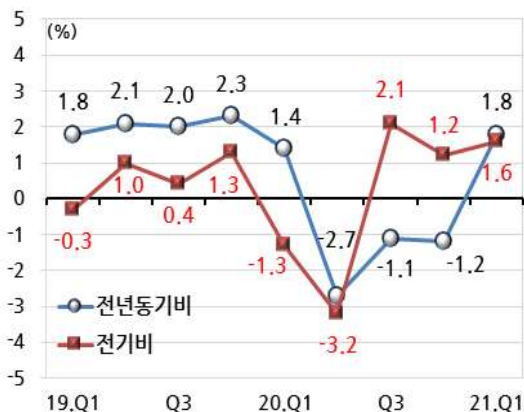


## 1. 개요

○ (경기 회복세의 강화) 수출 호황과 내수 부문의 기저 효과적 반등으로 경제 성장률과 경기지수의 개선세가 강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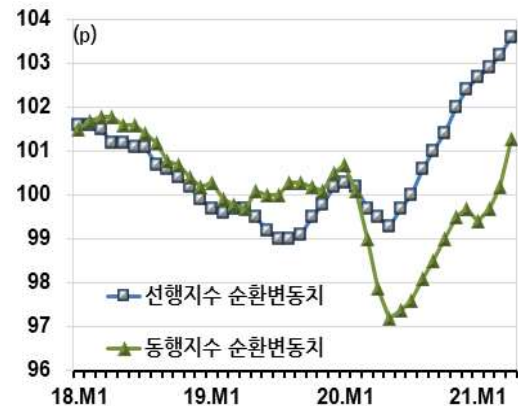
-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반등하면서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 모두 플러스를 기록
  - 2021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1.8%를 기록함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도 2020년 3분기 2.1%, 4분기 1.2%에 이어 2021년 1분기에도 1.6%를 기록함
- 4월에 들어서도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4월 101.3p로 3월 100.2p보다 상승함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99.4p, 2월 99.7p, 3월 100.2p, 4월 101.3p
  - 또한,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3월 103.2p에서 4월 103.6p로 높아짐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월 102.7p, 2월 102.9p, 3월 103.2p, 4월 103.6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회복) 소비 회복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으나,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소비 경기는 올해 1~2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3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상에 있으나 4월에 들어서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

· 4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함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MoM): 1월 1.6%, 2월  $\Delta$ 0.9%, 3월 2.3%, 4월 2.3%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월 0.0%, 2월 8.2%, 3월 10.9%, 4월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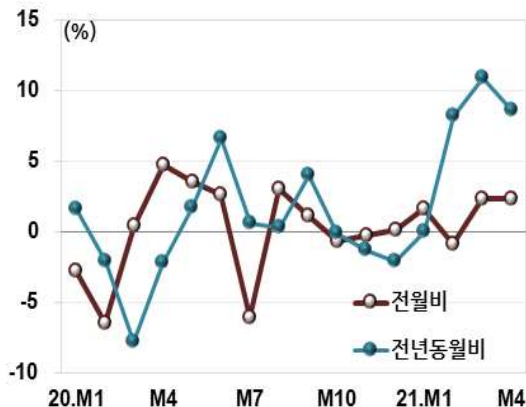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비내구재와 준내구재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구재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통신기기 및 컴퓨터, 가전, 승용차 등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3월 전월대비  $\Delta$ 1.0%에서 4월에 0.7%의 증가세로 전환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MoM): 1월 4.7%, 2월  $\Delta$ 1.8%, 3월  $\Delta$ 1.0%, 4월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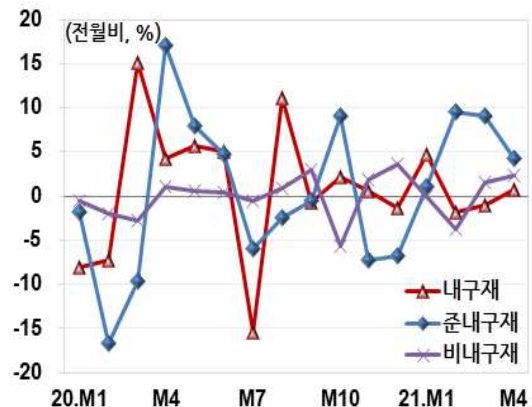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MoM): 1월  $\Delta$ 0.1%, 2월  $\Delta$ 3.8%, 3월 1.6%, 4월 2.4%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 확대) ICT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비ICT 부문 투자가 확대되면서 강하지는 않지만 회복세가 지속

- 4월에 들어 ICT 산업보다는 비ICT산업에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

· 전체 설비투자지수는 비ICT 투자가 확대되면서 4월 중 전월대비 3.5%의 증가율을 기록함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 1월 6.3%, 2월 △2.2%, 3월 0.0%, 4월 3.5%

※ ICT 투자지수 증가율(MoM): 1월 1.9%, 2월 △8.6%, 3월 6.1%, 4월 0.5%

· 부문별로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향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기인한 생산능력 확충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에서는 자본재수입액과 국내기계수주액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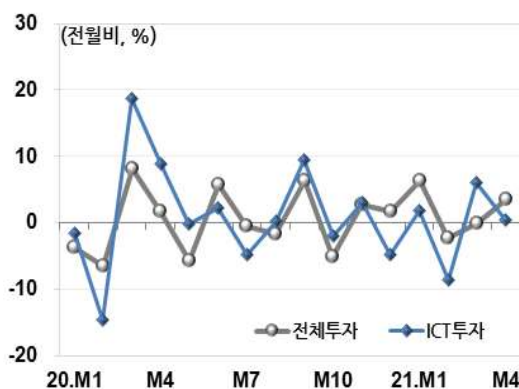
·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올해 들어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37%의 높은 수준을 기록 중임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1월 50.3%, 2월 38.3%, 3월 25.7%, 4월 33.8%

· 한편,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지난 1월을 저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1.7%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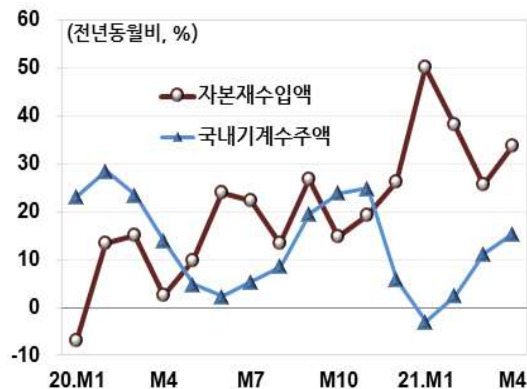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sup>1)</sup>: 1월 △0.9%, 2월 25.1%, 3월 9.5%, 4월 11.7%

< 설비투자 및 ICT투자 지수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1) 국내기계수주(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액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건설 경기 상승) 건설수주가 호조를 지속 중인 가운데, 건설기성이 증가세로 전환

- 4월 중 건설투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증가세를 시현

·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3월  $\Delta 1.0\%$ 에서 4월에  $4.5\%$ 의 증가세로 전환됨

※ 건설기성 증가율(YoY): 1월  $\Delta 4.9\%$ , 2월  $\Delta 4.9\%$ , 3월  $\Delta 1.0\%$ , 4월  $4.5\%$

· 발주자별로는 4월 중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기성실적이 증가함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월  $\Delta 7.2\%$ , 2월  $\Delta 1.7\%$ , 3월  $7.6\%$ , 4월  $12.7\%$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월  $\Delta 4.6\%$ , 2월  $\Delta 6.4\%$ , 3월  $\Delta 3.1\%$ , 4월  $2.7\%$

- 한편, 향후 건설 경기 수준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증가세를 유지 중

· 4월 민간 부문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9.6\%$ 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공공 부문 수주도  $151.5\%$ 나 증가함

※ 건설수주 증가율(YoY)<sup>2)</sup>: 1월  $27.2\%$ , 2월  $17.4\%$ , 3월  $35.8\%$ , 4월  $84.2\%$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sup>3)</sup>: 1월  $\Delta 5.8\%$ , 2월  $\Delta 2.0\%$ , 3월  $13.0\%$ , 4월  $1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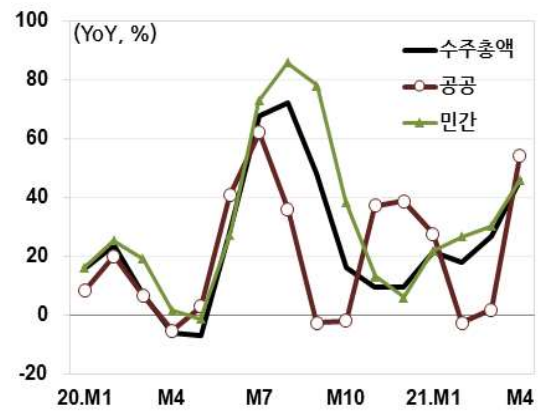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sup>4)</sup>: 1월  $32.9\%$ , 2월  $19.5\%$ , 3월  $37.9\%$ , 4월  $79.6\%$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주: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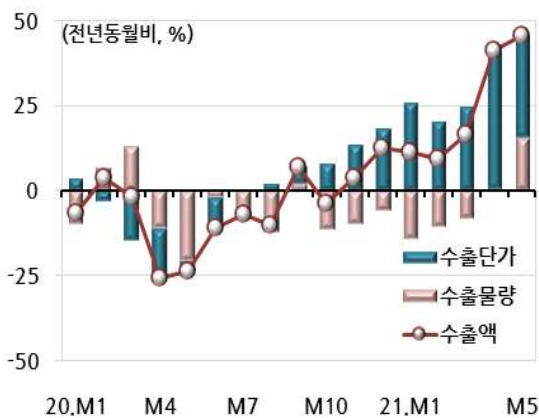
2) 건설수주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3) 공공 부문 건설수주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4) 민간 부문 건설수주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수출 호황) 수출 경기는 단가와 물량이 모두 크게 증가하는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진입

- 5월 수출은 수출 단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 물량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
  - 5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45.6%로 '20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 수출액 증가율: 1월 11.4%, 2월 9.3%, 3월 16.4%, 4월 41.2%, 5월 45.6%
  - 특히, 수출 단가와 수출 물량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경기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됨
    - ※ 수출 물량 증가율: 1월 △14.3%, 2월 △10.9%, 3월 △8.2%, 4월 0.5%, 5월 15.6%
    - ※ 수출 단가 증가율: 1월 25.7%, 2월 20.2%, 3월 24.6%, 4월 40.7%, 5월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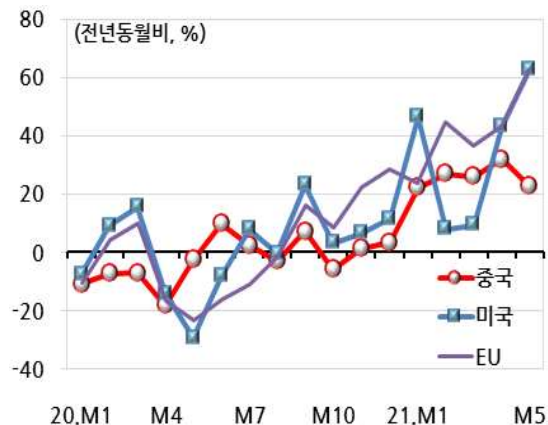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으로 중국, 미국, EU 등 대부분 주력 시장에 대한 우리 수출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
  - 5월 중 수출 대상 지역별로는 對중국(22.7%), 對미국(62.8%), 對EU(62.8%) 등의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나타냄
    - ※ 對중국 수출증가율: 1월 22.2%, 2월 27.0%, 3월 26.0%, 4월 31.9%, 5월 22.7%
  - 품목별로는 반도체(24.5%), 가전(89.4%), 무선통신기기(41.4%), 자동차(96.7%), 자동차부품(182.3%), 석유제품(164.1%) 등이 모두 호조를 기록함

< 월별 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 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기저효과에 의한 고용 개선) 전년도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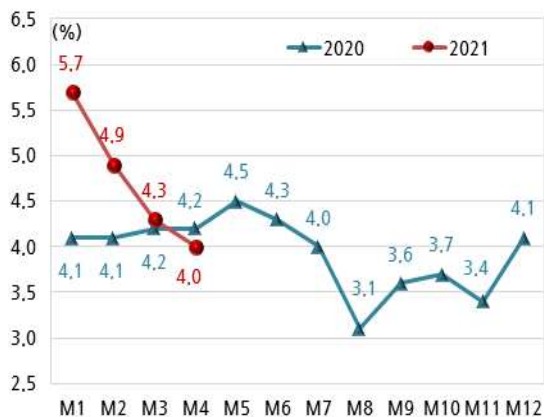
- 4월 중 전체 실업률은 1년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도 하락

- 2021년 4월 실업률은 4.0%로 전년동월(2020년 4월의 4.2%)보다 하락하였으며, 4월 확장실업률도 13.8%로 전년동월의 14.9%보다 하락함
- 또한, 4월 중 청년실업률(15~29세)은 10.0%로 전년동월(9.3%)보다 상승하였으나, 청년 확장실업률은 25.1%로 전년동월(26.6%)보다 개선됨

- 전년도의 고용 충격에 대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4월 중 대부분 업종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 전체 신규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5만 2,000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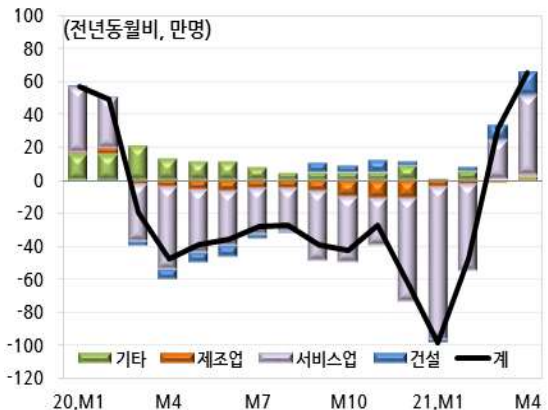
- 4월 중 취업자수 증감분(전년동월비)은 전년동월대비 65.2만 명으로 3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 취업자 증감(YoY): 1월 △98.2만 명, 2월 △47.3만 명, 3월 31.4만 명, 4월 65.2만 명
- 4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0.9만 명, 건설업 14.1만 명, 서비스업 48.7만 명임

< 2020년 및 2021년 월별 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sup>5)</sup>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5)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 (인플레 압력 집중)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도 집중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

-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증가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수입 물가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 수입물가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

※ 수입물가 상승률(YoY): 1월  $\Delta$ 5.8%, 2월  $\Delta$ 0.3%, 3월 9.0%, 4월 15.0%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농림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3월 전년 동월대비 4.1%에서 4월에 5.6%로 크게 높아짐

※ 생산자물가 상승률(YoY): 1월 0.9%, 2월 2.1%, 3월 4.1%, 4월 5.6%

- 한편, 소비자물가는 전기·수도·가스는 하락하였으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2.6% 상승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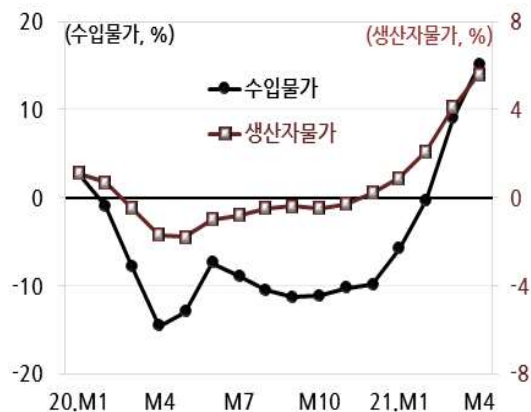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6%로 2012년 3월(2.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YoY): 1월 0.6%, 2월 1.1%, 3월 1.5%, 4월 2.3%, 5월 2.6%

· 특히,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7년 8월(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전년동월대비 3.3%를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활물가 상승률(YoY): 1월 0.3%, 2월 1.2%, 3월 1.5%, 4월 2.8%, 5월 3.3%

< 생산자 물가 및 수입 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 물가 및 생활 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 (긍정적 경제 심리 확산) 최근에 들어 가계소비 심리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되는 모습

-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5.2p를 기록하며 지난 3월(100.5p)이후 기준치 100p를 3개월 연속 상회 중

·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5월 현재 85p로 올해 1월(56p)이후 상승세를 유지 중임

※ 현재경기판단 CSI: 1월 56p, 2월 63p, 3월 72p, 4월 77p, 5월 85p

· 한편, 향후경기전망 CSI도 4월 94p에서 5월에 99p로 개선됨

※ 향후경기전망 CSI: 1월 89p, 2월 90p, 3월 93p, 4월 94p, 5월 99p

- 반면, 그동안 빠르게 개선되었던 기업 부문의 경제 심리가 2분기에 들어 다소 위축되는 모습<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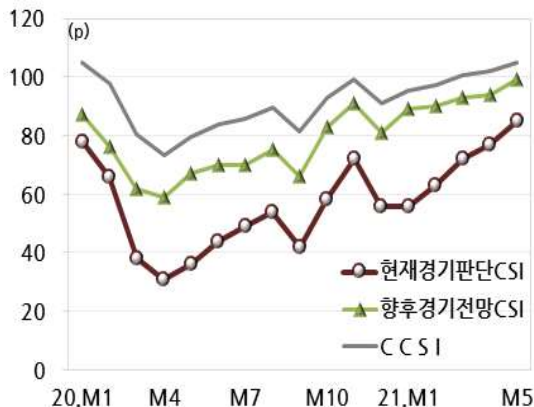
· 전경련 BSI(전망)는 3월(109.2p)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음

※ 전경련 BSI(전망): 1월 91.7p, 2월 96.6p, 3월 109.2p, 4월 106.0p, 5월 107.7p, 6월 102.6p

·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도 올해 들어 빠르게 개선되는 추세이었으나, 6월에 들어서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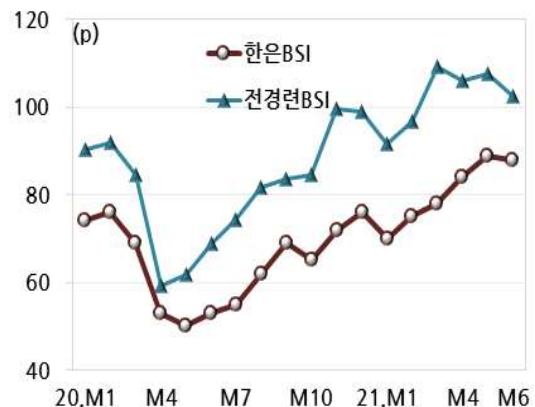
※ 한은 BSI: 1월 70p, 2월 75p, 3월 78p, 4월 84p, 5월 89p, 6월 88p

< 소비자심리지수(C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6) 전경련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의 명목적 기준치는 100p이나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광공업 경기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시현

- 4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감소세로 전환

· 전년동월대비 기준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3월 5.7%에서 4월에 8.8% 크게 높아짐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1월 1.5%, 2월 0.4%, 3월 5.7%, 4월 8.8%

· 그러나 전월대비로는 3월 0.9%에서 4월에  $\Delta$ 1.1%의 감소세로 전환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 1월  $\Delta$ 0.5%, 2월 2.0%, 3월 0.9%, 4월  $\Delt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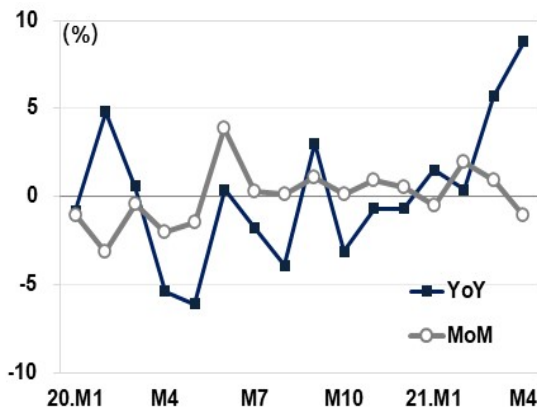
- 4월 중 전년동월대비 기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업 생산은 감소세를 기록

·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1월 7.8%, 2월 0.8%, 3월 4.4%, 4월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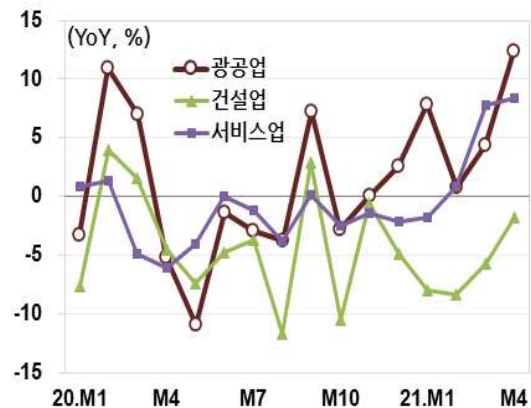
· 한편, 4월 건설업과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각각  $\Delta$ 1.8% 및 8.4%를 기록하였으며, 공공행정 증가율은 4.1%의 증가세를 기록함

<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제조업) 2분기에도 생산 증가세가 확대 중인 가운데, 출하가 크게 늘고 재고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제조업 생산은 지난 2월 다소 부진하였으나 이후 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

· 4월 제조업 생산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반도체(30.0%), 자동차(20.1%), 기계장비(16.6%) 등이 호조를 보여 13.0%를 기록함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1월 7.6%, 2월 0.9%, 3월 4.5%, 4월 13.0%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월 이후 77.3%를 기록한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 제조업 평균가동률: 1월 73.0%, 2월 77.3%, 3월 74.9%, 4월 73.8%

- 최근에 들어 출하가 크게 늘고 재고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 확장 국면의 특징이 발견

· 시장 수요 급증으로 제조업 출하는 '20년 11월 이후 4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중임

※ 출하증가율(YoY): 1월 8.4%, 2월 1.2%, 3월 3.4%, 4월 13.5%

· 또한, 재고도 감소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시장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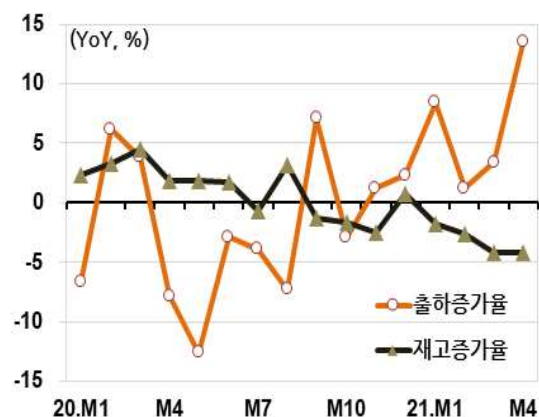
※ 재고증가율(YoY): 1월  $\Delta$ 1.7%, 2월  $\Delta$ 2.6%, 3월  $\Delta$ 4.2%, 4월  $\Delta$ 4.2%

<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 >



자료: 통계청.  
주: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 경기는 건축과 토목 시장 모두 수주가 확대되는 모습

- (서비스업) 4월 서비스업은 전월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2월 이후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

· 전월대비 기준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2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 중이나 4월 중 생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1월  $\Delta 1.8\%$ , 2월  $0.8\%$ , 3월  $7.8\%$ , 4월  $8.4\%$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1월  $\Delta 0.1\%$ , 2월  $1.1\%$ , 3월  $1.3\%$ , 4월  $0.4\%$

· 전월대비 기준으로 4월 중 도소매(전월대비  $0.8\%$ ), 숙박·음식점( $3.1\%$ ), 교육( $0.7\%$ ) 등 대부분의 대면 업종이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운수·창고( $\Delta 2.2\%$ ), 정보통신( $\Delta 2.0\%$ ), 협회·수리·개인( $\Delta 0.9\%$ ) 서비스 등은 부진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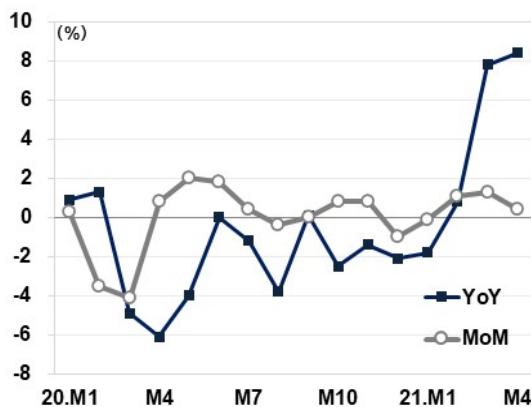
- (건설업) 건설업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확대되면서 완전한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4월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158.8\%$ 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건축 부문도  $71.4\%$  증가함

※ 건축 건설수주액 증가율(YoY)<sup>7)</sup>: 2월  $15.6\%$ , 3월  $32.2\%$ , 4월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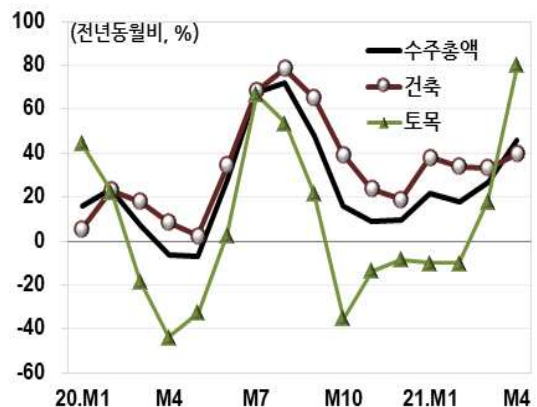
※ 토목 건설수주액 증가율(YoY)<sup>8)</sup>: 2월  $29.4\%$ , 3월  $51.8\%$ , 4월  $158.8\%$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축 및 토목 건설수주액증가율 >



자료: 통계청.

주: 3개월 이동평균.

7) 건축 부문 건설수주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8) 토목 부문 건설수주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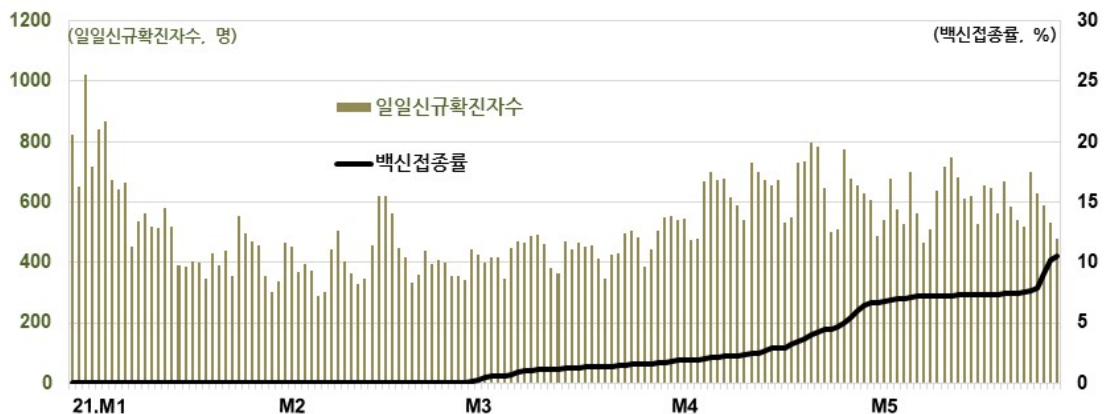
#### (1) 경기 방향성 결정 핵심 리스크 요인

-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속도, ② 국내외 금융시장의 긴축발작(Taper Tantrum),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현실화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판단

#### ①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 속도

- 현재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크게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향후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경기 회복세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2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여전히 방역 상황이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
    - 올해 들어 신규확진자수는 1분기 일평균 465명에서 2분기(4~5월) 612명으로 증가함
    - 다만, 월간 기준으로는 3월 일평균 438명에서 4월 633명으로 높아졌다가 5월 590명으로 소폭 하락함
  - 향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집단면역의 형성 시기가 2021년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신규확진자수 및 백신접종률 추이 >



자료: 질병관리청, Our World in Data.

② 국내외 금융시장의 긴축발작(Taper Tantrum, 緊縮發作)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임박하여 신흥국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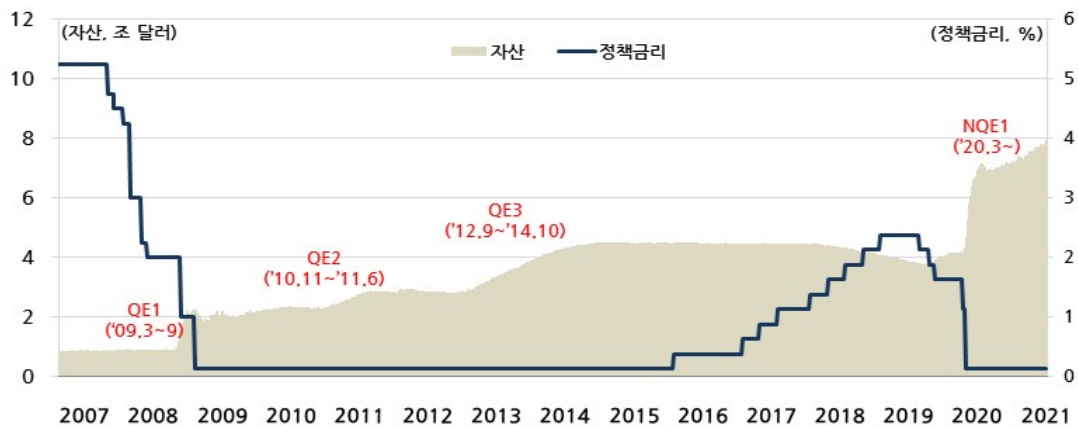
-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극단적인 팽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중

- 미 연준(FED)은 2020년 3월 제로 금리 단계 진입 이후 양적완화(QE) 정책 지속 중임
-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 미 연준의 자산 규모는 2020년 초 4.3조 달러에서 2021년 5월 현재 7.9조 달러로 3.6조 달러 확대됨
  - ※ 미 연준 자산은 금융위기 기간 중 0.9조 달러에서 2.3조 달러(1.4조 달러↑)로 증가, 재정위기 기간에는 2.9조 달러에서 4.5조 달러(1.6조 달러↑)로 증가함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여 신흥국 통화가치의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가 존재

- 2013년 5월 벤 버냉키 前 미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양적완화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음
- 미 연준은 2008년 이후 자산을 크게 늘린 이후, 축소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로 다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산을 매입 중임
- 따라서 미국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테이퍼링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 미 FED의 정책금리 및 자산 추이 >



자료: FED. 주: QE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를 의미.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 최근 주요국은 물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의 회복세를 위협할 가능성이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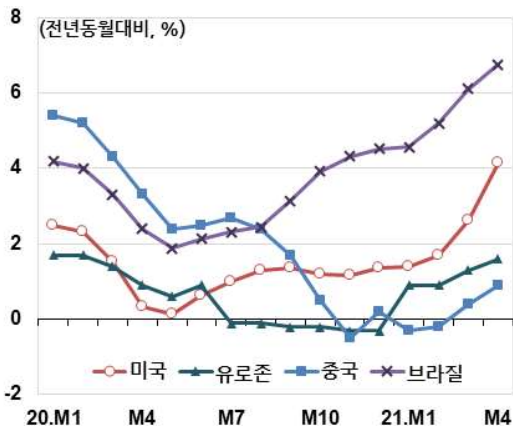
- 2021년에 들어 대부분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

- 2021년의 상황만 살펴보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전년동월대비 1.4%에서 4월에 4.2%로 급등함
- 같은 기간 주요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유로존은 0.9%에서 1.6%, 중국은  $\Delta$ 0.3%에서 0.9%, 브라질은 4.6%에서 6.8%로 높아짐
-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주된 원인이나, 최근 실물 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가 빠르게 가세하는 상황임

- 국내 물가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물가 불안(inflation)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존재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0.6%에서 5월 2.6%로 급등함
- 특히, 실제 시장 수요 측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의미하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도 같은 기간 전년동월대비 0.9%에서 1.5%로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 중임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 국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 (현 경기 판단) 2021년 2분기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회복 국면에 안착한 것으로 판단
  - 수출 및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내수 부문도 빠르지는 않지만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1분기 경기 회복 초기 국면에 진입한 이후, 2분기에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국면으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경기 전망) 하반기 경기 흐름은 건조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빠르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경기 추세의 우상향' 기초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내수 부문도 방역상황의 개선(백신접종 확대에 의한 확진자수 감소)으로 회복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소프트패치 가능성) 하반기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관점이 지배적인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될 경우 소프트패치나 더블딥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향후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 집단면역 달성 전제하에서, 그 직전 분기인 3분기부터 경제 내 대부분 섹터들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더블딥 가능성) 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새로운 펜데믹이 발생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보건학적 위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 경기 재침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함
  - (소프트패치 가능성) 미 연준 정책 기조 변경(양적 완화 축소)으로 인한 신흥시장의 긴축발작과 국내외 인플레이션의 과속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불확실성 증대는 모두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기가 회복되다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소프트패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4. 시사점

첫째, 코로나19발 불황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면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예상되는 경제 정상화 시점에서 경제 내 급격한 버블 증폭이 우려됨
- 따라서 지금부터는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고, 향후 경기 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둘째, 세계 경제 회복세에 대응하여 수출 경기 확장을 위한 차별적인 시장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반등세가 수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일즈 외교 확대와 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예상되는 국가별 방역 상황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의 격차에 대응하여 시장별 차별성을 가진 수출 전략이 요구됨
  - ※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EU의 경기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들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외 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수준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 전략이 필요함



셋째, 신흥시장 긴축발작에 대비하여 후행 글로벌 경제위기의 국내 전이 가능성 차단을 위한 대응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 과거 경험상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연속성(선행위기에 이어 후행위기가 연이어 발생)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각국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의 후유증으로 후행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예, 외환위기 이후 닷컴버블 붕괴,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 발발)
- 이에 대응하여 신흥시장 및 금융·원자재 시장의 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이상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함
- 또한 경제주체들은 또 다른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하고 그 실행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업은 신흥시장 긴축발작 가능성에 대응하여 외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대응 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임

넷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민체감물가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

-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풍수해 등의 자연적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심각한 공급 부족을 나타낼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신속한 수입 물량 확대를 통해 가격 급등을 방지해야 할 것임
- 한편, 수급 상태와 관계없이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물가 상승 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다섯째, 코로나19 이후의 시장 수요 복원에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잠재성장률 급락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시장 규제 개선 노력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도모 방안 마련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정부의 뉴딜 정책에 기업들이 대규모 마중물 투자로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동반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기존 주력 산업들이 성숙화되어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조속히 발굴하고 대응되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